

2016. 9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대전 MBC

2016년 9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사명 : 대전문화방송

1. 회의개최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수		비 고
		위 원	방송사	
2016.9.27	대전MBC 대회의실	7/10	6	

○ 시청자위원 불참자(명) 명단 : 정민근, 장백기, 신종성

○ 방송사 주요참석자 명단: 대표이사, 오승용 경영기술국장, 김미리 편성제작국장, 최혁재 보도국장, 최종명 방송기술부장, 우경수 경영심의부장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5	4	-	2	11	-	11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 분	수 용	의견참고	반 론	계
건 수	10	1	-	11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 월
계	7건	7건	9월
교양	TV 프로그램 예고 PR 하길	아침이 좋다, 시사플러스, 허참 토크 앤 조이 등 방송 전 예고 PR 시행	9월
교양	정보 프로그램에서 대전시민들이 대전의 오래된 것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아이템 발굴	정보 프로그램인 “아침이 좋다”에서 중리동 벼룩시장(9월6일), 오래된 서점 나들이(9월19일) 방송	9월
교양	로드 다크 프로그램에서 볼거리, 먹을거리 등 지역정취를 좀 더 담기를	로드 다크 “테마기행 길” 행복도시 세종 둘레길을 가다(9월8일)에서 다룸.	9월
보도	외래식물 가시박에 대한 생태계 교란의 심각성을 금강유역이나 세종시 사례를 보도하길	가시박 뒤덮힌 금강 신음(9월25일) 방송	9월
교양	시사프로그램 진행자 서서 진행하는 것 보다 앉아서 진행하는 모습이 자연스럽지 않을까?	시사플러스 진행자 앉아서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으로 변화 줌	9월
교양	생활정보 프로그램에서 리포터 화면처리 어색함	아침이 좋다 리포터 사전 리허설 통해 본 방송시 화면처리 자연스럽게 처리	9월
교양	야외촬영 스태프 현장취재시 취재원과의 관계 설정	야외촬영시 현장에서 만나는 취재원들과 원만하게 진행	9월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청 내용	조치 내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성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해당사항 없음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관련 공개 청구

요청자(단체)	공개내용	공개방법
없음	회의 내용 및 처리결과	홈페이지

나. 시청자위원 변동사항

임기: 2016. 5. 31.~2017. 4. 30.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분	변동사유
위원장	정민근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대덕연구개발특구 기관장협의회	과학기술단체	
	김학선	전 대전MBC 편성국장	대전충남 아나운서협회	언론관련단체	
위원	장백기	세종종합사회복지관장	한국청소년 진흥재단	청소년단체	
위원	성정모	변호사	대전지방 변호사회	변호사단체	
위원	정철상	호서대학교 청소년문화상담학과 교수	(재)청소년과 사랑사랑충남지회	청소년단체	
위원	이상진	충남연구원 연구실장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과학기술단체	
위원	이승선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한국방송학회	언론관련단체	
위원	박정훈	갤러리아타임월드 백화점장	대전상공회의소	경제단체	
위원	신종성	골프존 네트워크 대표이사	대전상공회의소	경제단체	
위원	강은혜	대전YWCA 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대전YWCA	소비자단체	

의견제시 및 시정요구에 대한 답변 (9월)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고		
			수용	참고	반론
기타	<p>방송사를 시 청취자에게 알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 수단이 있다. 이중에 고속도로를 비롯해 국도 등 도로변에 설치돼있는 방송사의 로고와 라디오의 주파수 안내 표지판은 도로를 주행하는 운전자들에게 그 지역의 라디오 채널을 맞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관광하고 있는 방송사의 위상을 높이는데 한 몫을 하고 있다. 대전MBC의 경우도 대전, 세종, 충남지역 곳곳의 도로변에 표준FM과 음악FM의 주파수를 표기한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 놓았다.</p> <p>우리지역에 몇 개 정도의 안내 표지판이 설치돼 있는지 필자는 알 수 없지만, 자주 눈에 띄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그리 넉넉한 사정은 아닌 듯싶다.</p> <p>눈에 띄게 커져가는 세종시를 연결하는 주요 도로의 실정을 보면, 대전MBC의 안내 표지판은 거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다. 대전시 노은동에서 세종시로 향하는 자동차 전용 도로의 경우는 세종시 방면으로 한 군데 설치돼 있는데, 그리 크지도 않아 속도를 내다보면 눈에 잘 띄지도 않는다.</p> <p>그리고, 개통 1년여 돼가는 대전 신탄진에서 세종시로 연결되는 왕복6차로의 자동차 전용도로에는 대전MBC의 라디오 주파수의 안내표지판은 없는데 비해, 대전방송의 안내표지판이 위 도로의 중간 지역 같은 곳 도로 양쪽에 제법 큰 크기로 서있다.</p> <p>게다가, 양면에 표기돼 있어서 오가는 운전자가 보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치돼 있다. 지역 곳곳에 신설되는 넓은 도로들이 있는데, 이들 도로들에는 향후 설치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p> <p>대전MBC 라디오의 주파수를 알려주는 도로 안내 표지판의 전수 조사를 통해서 설치 계획을 세워 나가야 하겠다(김학선).</p>	<p>방송 주파수 안내 게시판의 규격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에 맞게 설치하고 있다. 신탄진에서 세종시로 연결된 왕복 6차선 전용도로에 대전MBC 방송주파수 안내 게시판이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다.</p> <p>협의를 거쳐 설치하도록 노력하겠다.</p>			
교양	<p>경주에서 역대 최대 규모 5.8지진이 발생하여 9월 13일 뉴스데스크에서는 우리지역</p>	<p>9월 21일 아침이 좋다의 <뉴스&정보> 코너에서 “지진 이것만 기억하자”를 제</p>	○		

	<p>도 큰 지진에 속수무책이고 내진 보강 대책이 시급하다는 내용과 함께 지진대피요령을 알려주었다.</p> <p>전 국민이 역대 최대 규모 지진에 많이 놀라고 대전과 세종 충남지역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불안감에 시민들은 지진이 발생했을 때 상황별 지진 대피요령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데 주부들이 많이 시청하고 있는 ‘아침이 좋다’에서는 지진과 관련하여 9월 13일에 지진대피요령에 대해서 진행자가 시작 멘트로만 정보를 주어서 많이 아쉬웠다.</p> <p>그 이후에 9월 19일 방송에서는 가을 산행 시 필요한 준비물이나 사고 예방수칙, 조난시 대처법 등을 안내하였는데 지진대피요령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정보를 주었다 라면 좋았겠다.</p> <p>물론 9월 21일 방송에서 안내 해 주었지만 제가 그 방송은 보지는 못했다. 그런데 조금 더 빨리 시청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을 때 그 시기에 적절하게 정보 제공을 해 주었으면 한다. 앞으로도 아이를 키우는 주부들이 많이 시청하는 “아침이 좋다”에서 상황별 지진 대응요령을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다루어 주는 것이 지진발생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강은혜).</p>	<p>목으로 지진이 일어났을 때 필요한 행동요령과 필요한 정보에 대해 방송을 하였다.</p> <p>대전, 충남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앞으로 지진 등의 재해에 관련하여 시청자들에게 발빠르게 정보를 전달하겠다.</p> <p>9월 25일 “시사토론 M”에서 <긴급진단, 한반도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전문가를 모시고 지진 발생 원인과 함께 문제점과 내진설계 등 대비책에 대해 토론하였다.</p> <p>9월 12일 경주에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10월 3일 기준으로 총 456회의 여진이 잇따랐는데 이제 더는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었다.</p> <p>시사 저널리즘 프로그램인 “시사플러스”에서도 10월 6일 <시사르포 "지진 안전, 이대로 괜찮은가">를 방송하여 지진이 왜 발생했는지, 그 원인부터 피해 실태,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까지 제시해 보았다.</p>	
교양	<p>역대 최대치로 기승을 부리던 올여름 폭염은 농·축·수산물 생산농가 생계마저 위협받았다. 작황이 좋지 못했고 생산량이 감소해 큰 피해를 본 상황이다. 농가는 더위와 싸우며 애써 키웠지만 폭염으로 인해 모두 물거품이 되었다며 허탈해하였다.</p> <p>모두 휴가를 떠날 무렵 생존의 터전에서 더위와 사투를 벌이는 모습을 시사플러스 “폭염이 남긴 상처(9월8일)”에서 담아냈다. 사과 수확량은 작년과 비교하면 절반을 훌쩍 넘게 줄었으며 많은 닭은 폐사하여 수입이 적어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농민들의 안타까움과 애잔함이 화면 밖으로 까지 느껴졌다.</p> <p>총 농가가 100억원 이상의 피해를 보았으며 농민들은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며 수산시장은 그 피해가 더 크다고 한다.</p> <p>앞서 인터뷰에서도 언급됐듯이 장기적 폭염을 기상청에서 충분히 예보를 해주었다 라면 농가에서는 미리 대비책을 마련했을 텐데 이러한 대비가 너무 미흡한 것 같다.</p>	<p>기상청에 따르면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을 기록한 폭염 일수가, 8월에만 16.7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만큼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농축수산 생산농가에선 피해가 발생했는데, 올 여름 폭염으로 폐사된 가축은 430만 마리, 양식장 폐사 어패류만 643마리에 이른다.</p> <p>또한 과수 농가에선 상품가치가 높은 과수 생산량이 현저히 줄어들었다.</p> <p>따라서 정부는 읍·면·동사무소 신고를 바탕으로 폭염 피해 현황을 집계하여 피해 보상을 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의 재해지원과 재해보험의 보상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재해지원을 받을 경우엔 피해 보상 금액이 부족하고, 재해보험으로는 폭염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실을 외면한 불합리한 손해평가는 재해보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시사플러스는> 각 생산농가들의 폭염 피해 현황과 함께 우리가 준비해야 할 폭염 피</p>	

	<p>대책을 잘 마련해 피해당한 농가를 일으키기에 힘써야 할 것 같다.</p> <p>폭염으로 피해당한 농민들의 상처와 슬픔이 잘 전달이 됐으며 정부에서의 대책도 신속히 해결됐으면 한다(성정모).</p>	<p>해의 지원대책과 예방대책을 살펴보았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탐사 취재하여 공론화 하겠다.</p>			
교양	<p>허참의 토크 앤 조이(9월25일)에서 “옥수수박사 김순권” 편이 방송되었다.</p> <p>퀴즈를 통해 옥수수에 대한 설명으로 오픈닝을 연 것이 재치있고 자연스럽게 시작한 것 같다.</p> <p>김순권 박사의 프로필을 숫자로 보는 프로필로 공개하며 관련 있는 숫자를 화면에 띄우며 그간의 노력과 경력을 소개해 주었다.</p> <p>학창시절 짝사랑하던 소녀를 쫓아간 교회를 통해 “어떤 사명이 있어서 태어났을 것이다”라는 깨달음을 얻고 인류를 위해 먹여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말은 가슴 깊이 남는다. 지루하지 않은 토크로 방청객들 또한 즐겁게 경청하였다.</p> <p>사무실에서도 간식으로 즐기던 옥수수인데 이 방송을 통해 옥수수 품종에 대해서도 더 알게 되었다.</p> <p>토크 중간에도 VCR을 통해 보여주고 옥수수를 직접 촬영현장에서 먹는 부분도 재미있게 보았다. 그렇지만 김순권 박사의 업적뿐만 아니라 옥수수의 영양성분 등에 관한 이야기가 더 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었다(성정모).</p>	<p>작은 종자 하나로 아프리카인들의 삶을 바꾸어 놓은 사람이 있다. 슈퍼 옥수수 개발자, 김순권 박사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무려 다섯 번이나 노벨상 후보로 추천되기도 한 김박사에겐 아직 못 다 이룬 꿈이 있다. 작은 옥수수 낱알로 세계 기아를 해결하고 남과 북을 하나 되게 만들겠다는 담대한 노학자의 꿈!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허참의 토크 앤 조이에서 펼쳤다.</p> <p>지적인 내용은 프로그램 제작 시 유념 하겠다.</p>			
보도	<p>대전MBC 홈페이지에서 고발성 제보를 받고 있다. 고발성 이외에도 훈훈한 미담을 제보 받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p> <p>지역의 미담사례를 발굴해 이를 방송과 연계하고 기록했으면 한다(박정훈).</p>	<p>홈페이지 제보란은 고발성뿐만 아니라 미담사례도 같이 접수하고 있다. 미담사례를 발굴, 방송과 연계하겠다.</p>	○		
보도	<p>시사토론 M에서 “긴급진단, 한반도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지진 문제를 다루었다. 시의적절한 토론이었다. 유형별 대처요령이 미흡해 아쉽다.</p> <p>뉴스데스크에서 지진을 검색해보니 9월 12일 리포트물 뉴스 1개 9월 13일 리포트 뉴스 3개 9월 19일 단신 뉴스 1개, 9월 20일 리포트물 뉴스 2개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p> <p>지진 관련 같은 긴급재난 뉴스는 시청자들</p>	<p><긴급진단, 한반도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에서는 유택열(대전시 시민안전실 재난관리과장), 선창국(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진연구센터 지진재해연구실장), 김민규(한국원자력연구원 종합안전평가부 책임연구원), 유인창(경북대 지질학과 교수), 고은아(핵없는 사회를 위한 대전공동행동 운영위원장) 등 전문가가 출연하여 지진 발생 원인과 함께 문제점과 내진설계 등 대비책에 대해 토론</p>	○		

	<p>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뉴스를 전달해줄 필요가 있다.</p> <p>앞으로도 더욱 많이 다루어지길 바란다(박정훈).</p>	<p>하였다. 지진 문제는 범국가적 문제 일뿐 아니라 우리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도 기획뉴스와 토론 등 관련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작 방송하겠다.</p>			
교양	<p>건강플러스(9월24일) “TV주치의”코너에 대표적인 부인암인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난소암 등을 다루었다.</p> <p>방송 화면에서 종양을 적출한 모습이 공개되었다. 다소 자극적이었다. 정보전달은 좋지만 전달방식에 있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정철상).</p>	<p>건강플러스 “TV주치의”코너에서 취급하는 영상물은 시청자들에게 자극적인 부분은 사전에 걸러 전달하겠다.</p>			
보도	<p>가정 형편이 어려운 제자를 위해 장학금을 내놓는 무려 15년이나 한결같이 제자 사랑을 실천해 온 한남대학교 교수들 이야기가 보도되었다(9월 25일 뉴스데스크)</p> <p>한남대학교 장학금 선행은 올해로 벌써 15년째로서 2001년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제자를 돕기 위해 매달 월급에서 얼마씩 떼어 모으기 시작한 것이 1억5천여만 원에 달한다고 전했다.</p> <p>취업난 등으로 캠퍼스 분위기가 밝지 않은데 참으로 훈훈한 소식이다.</p> <p>이런 미담 사례는 적극적으로 발굴해 보도를 계속해주길 바란다(이상진).</p>	<p>미담이란 “사람을 감동시킬 만큼 아름다운 내용을 가진 이야기”를 뜻한다.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각박한 현실에서 나 아닌 남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다. 공동체를 밝고 건강하게 만드는 이들을 적극 발굴해 우리 사회가 건강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p>			
기타	<p>대전MBC 홈페이지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제보란이 홈페이지 상단과 하단에 배치되어 있다. 정리할 필요가 있다. 보도자료를 게시하는 란에 업데이트가 되어 있지 않다.</p> <p>회사소개 인사말이 있다. 회사 CEO 인사말과 CEO칼럼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p> <p>대전MBC 얼굴들에는 아나운서, MC, 기자 등의 프로필이 올라와 있다. 각각의 직원이 맡고 있는 대표 프로그램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고 특히 기자 같은 경우는 기자의 이메일을 프로필에 같이 올려 일반 시청자들과도 소통할 수 있게 하길 바란다.</p> <p>사보인 M-STORY가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바 그냥 호수(몇 호)만 올리지 말고 각 호의 대표 제목을 같이 게재하여 접근성과 가독성을 올려주길 바란다.</p> <p>시청자위원회 회의록을 아래아 한글 양식이 아닌 수정이 어려운 PDF 파일로 올리</p>	<p>상, 하단에 배치되었던 뉴스제보란은 상단에 정리했고 보도자료란에 최근 방송된 보도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였다. 회사 소개 인사말과 CEO칼럼을 연계해 놓았다. 기자 소개란에는 기자의 이메일을 같이 올려놓았다. MC들의 대표 프로그램도 정리해 놓았다. M-STORY 각 호 별 제목을 정리하였고 시청자위원회 회의록은 아래아 한글이 아닌 PDF 파일로 수정 정리하였다.</p>			

	길 바란다(이승선).			
보도	<p>재난방송 시 대전MBC 대응시스템을 알고 싶다.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발생과 관련 대전MBC는 재해방송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이승선).</p>	<p>재난방송은 보도국장의 책임 하에 이루어진다. 먼저 재난경보 2.0 이상이 되면 하단 흘림자막(크롤)을 내보내고 흘림자막과 더불어 재난 관련 공익캠페인을 라디오와 TV에서 송출한다. 프로그램 편성권이 서울 본사에 있기 때문에 서울본사와 협의하여 재난방송을 하게 된다. 재난방송이 결정되면 뉴스특보 체제를 갖추어 재난현장에 중계차 출동하여 현장 생방송을 하게 되고 현장취재를 통한 뉴스제작물을 완성하여 송출 등을 하게 된다. 이로 인한 기존의 로컬 프로그램은 폐지된다.</p>		
보도	<p>창사특집으로 보도특집 다큐멘터리 “노벨에게 묻는다”(9월26일)를 시청하였다. 다큐멘터리 <노벨에게 묻는다>를 통해 많은 시청자들이 과학이 우리 일상생활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또 얼마나 많은 과학자들의 고민과 노력이 밑바탕이 됐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 아쉬운 점은 영상을 뒷받침하는 배경음악이 늦은 시청시간대(밤 11시 10분)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경쾌하다는 점이다. 프로그램 영상을 돋보이게 하는 것은 배경음악이 담당할 몫이다(성정모).</p>	<p>프로그램 영상미는 그 배경음악이 잘 뒷받침해주어야 더욱 살아난다. 딱딱한 과학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인지라 배경음악을 밝은 것을 선택하였다. 앞으로 다큐 제작 시 전체 구성에 튀지 않게 적절한 배경음악 사용을 고려하겠다.</p>	○	